

좌담회 토론문

김태식 : 지금부터 1분과 16차 합동분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일정은 한 주제당 통역 포함해서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전 중에 제 1주제 3세기 이전에 대해서 마치고, 2주제의 한 절반 정도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주제 나머지와 3주제를 하고, 약간 시간을 내서 이번 우리 제2기 위원회 1분과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의는 편집회의가 될 텐데, 원고 마감이 9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작성에 있어서 약간 더 논의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것을 끝내기 전에 잠깐 더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2기 제1분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濱田 : 좀 전에 선생님께서 좌담회의 방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1분과의 각 테마에 대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좌담회의 테이프 녹취, 향후의 편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발언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태식 : 1기 때부터 해오던 원칙인데 좌담회 녹취록은 고칠 수 없으니, 조리 있게 정리된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좌담회의 원칙은 각 주제별로 한일 양측에서 약 10분간 발제문을,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하고, 나머지 분들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대한일 또는 일한관계의 성립>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이니, 역시 손님이 먼저, 하마다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濱田 : 조 선생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셨으니, 조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만.

김태식 : 손님이시니까 하마다 선생님 먼저 하시지요.

濱田 : 아, 그렇습니까? 손님이 먼저였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손님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먼저 쓴맛을 보는 것이 이 회의입니까? 농담입니다.

저는 <고대 일한관계의 성립>, ‘지역 간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라는 주제로 연구정리에 임해왔습니다.

저의 보고문 목차로 아실 수 있겠는데, ‘고고학의 성과로 본 반도·해협·열도의 지역 간 교류’를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주제 하에서 주로 고고학자들의 논문과 문서들을 읽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부분의 글은 전문가이신 고고학자들이 보면 여러 가지로 비판 혹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우리는 주제를 폭넓게, 시대적으로 길게 설정했습니다. 그러한 의욕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 또는 관심 주제로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일한관계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일한관계사라는 문제의 설정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하는, 이른바 저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부제로 ‘지역 간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라고 하여 ‘지역과 교류’, ‘국가와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기원을 생각할 때, 혹은 일본 문화의 형성을 생각할 때 한반도 지역, 한반도 지역과의 교류는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사에 치환하면, 오늘날의 한국으로 이어지는 또는 한국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기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 한반도에서는 대륙과의, 중국 동북 또는 산둥 지역과의 관계·교류라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는 한반도 지역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지역 간 교류라는 것이 고대국가의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 간 교류는 과연 오늘날에 말하는 국가 관계로 이해해도 충분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혹성이 형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의 고대국가를 하나의 혹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혹성이 아직 혼돈된 코어상태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혹성이 되는 상태에서 말하면, 일본·한국의 고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지역 간 교류라는 것은 그런 코어라고 할까, 혼돈이라고 하면 혼란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혼돈 속의 국가 성립 이전의 지역 간 교류라는 것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광범위한 세계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10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고대국가, 일본의 고대국가, 한국의 고대국가가 언제쯤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또는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대의 일한관계사를 세계적인 규모에서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또 양국 국민들의 중요한 교양의 하나로서 배양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폭넓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법중 선생님께서도 한 10분 정도 발제문을 발표해 주시죠.

조법중 : 그럼 준비된 발표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하마다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의 문화교류 내지는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선사문화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언급, 연구 성과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일선사문화의 교류에 대한 것을 일단 큰 절로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일 선사문화 교류에 대한 한국·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볼 기회가 이번 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야요이(彌生) 문화 성립의 중요요소인 水田稻作, 그리고 청동기, 철기 등 금속문화의 전래양상에 대해서 종래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나 개설서에서는 전래의 주체나 지역에 대해서 좀 폭넓게 대륙이라고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연구 성과를 완전히 다 포괄해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접한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양국의 연구 성과가 확인되고 있었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

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稻作文化의 경우 한반도의 송국리 문화의 영향이 확실하게 양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청동기의 경우도 세형동검,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한국식 동검으로 불리는 한반도 중심의 동검문화가, 청동문화가 일본열도에 전해졌음이 확인되어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야요이 연대 상한과 관련된 AMS를 활용한 일본 사쿠라(佐倉)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최근 연구 활동과 성과는 상당히 유의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야요이 문화의 형성에 한반도로부터의 청동문화가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연구 성과나 내용이 충분히 포괄되지 않은 입장은 아직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연대 상승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교류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山海經》과 《漢書》地理志 기록의 내용을 볼 때에 일본 학계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출발과 근거로서 이 사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기록은 고조선 개국 등 倭와 奚 사이에 존재하였던 교류와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사건임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만조선 이후 성립된 낙랑, 대방 등 군·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위만조선과 왜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교류관계가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 왜와의 관계가 보다 새롭게 확인이 되었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래의 이 같은 이해가 양국의 개설서나 연구서에서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더 의미가 부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역사시대의 중국과의 관계까지 앞서 하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중역외교’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고조선 및 삼한을 포괄한 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중역외교’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서를 통해 동이 세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역을 해주는 중역 국가와 피중역 국가와 종족 사이에 附庸國家的인 성격의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삼한이 왜를 군·현과 중계하는, 연결하는데 중역을 해 주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중역외교에 의한 삼한·왜 등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향후 더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적인 연구 그리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제가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선사 고대의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향후 양국의 고고학적 성과를 체계화하고 종합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관심 높게 진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폭넓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앞서 하마다 선생님께서 제기한 것처럼 그 공동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태식 : 조법중 선생님의 발제는 크게 보서는 3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벼농사와 금속문화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전래된 것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관계는 고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역외교라는 체제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의 국제관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하마다 선생님이 제기한 한일관계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또는 지역 간 교류와 국가 간 교류, 지역 간 교류를 국가 간 교류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된다고 보입니다. 우선 조법중 선생님의 발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회의를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우선 조법중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濱田 : 제가 조 선생님과 같은 시대를 담당했었기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공동연구 좌담

회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를 담당한 선생님께서도 부디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처럼 딱딱하게 굳은 머리를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본의 연구, 일본의 이해 속에는 稻作文化 또는 청동기문화는 1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에서 들어온 것은 분명하여, 한국 충청남도의 송국리를 중심으로 한 稻作 또는 주거문화라는 것은 송국리에서 한반도 남부 그리고 북부 규슈(九州)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규슈 대학의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듯이 稻作文化가 보다 훨씬 전에 산둥반도를 경유하여 그리고 한반도 서남부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광범위한 루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청동기문화도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 들어오지만, 자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나 하는 시각이 일본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사적으로 볼 때 또는 세계사적으로 그런 문화의 전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속에서 국소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들어오는 최종적인 전파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글썽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견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고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왜와의 관계도 향후에는 꼭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른바 고고학에서 발굴한 곳의 양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의 전파상황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절대 연도로 해서 어떤 시대로 설정할까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山海經》이나 《漢書》 地理志 등에 왜가 나옵니다. 이것은 즉 어떤 형태로든 왜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자 측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정보는 중간에 있는 고조선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가 토대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헌은 매우 단편적이고 매우 적어서 역시 그런 조금밖에 없는 문헌기록에 나타난 예상되는 교류라는 것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땅속에 묻힌 문화재를 해석해 나가는 고고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의 양 지역의 교류가 드디어 3세기, 4세기의 일한관계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토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중역외교에 대한 점인데요, 두 지역, 한반도지역과 일본열도 서부지역과의 사이에서 그때까지의 이른바 느슨한 외교를 보다 강한 왕권이라고 할까요? 권

력의 집중이라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진부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漢武帝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황제 권력의 직접적인 출장기관인 4개의 군을 두었다는 것은 두 지역의 그 때까지의 교류를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무시할 수 없다.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삼한이 왜를 낙랑군, 대방군에 안내하자 왜의 나라들이 낙랑군, 대방군에 사절을 보낸다는 것은 당연히 삼한의 국가들과의 연계 하에서 또는 그 토지들을 경유하면서 나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선생님의 문제제기 속에서 중국왕조로 안내하여 중국어로 통역한다는 입장의 국가가 안내 받는 종족 또는 국가에 대하여 이것을 부용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관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지만 고대사의 논문을 읽어보고 갑자기 개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용국이라는 관계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좋을까 하는 점이 이 단어를 쓰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 선생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부용국 관계라고는 것은 어떤 실태를 또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나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틀어 부용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양자의 관계를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일 것으로, 다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중역하는 使者 또는 국가는 피중역국의 사자를 동반함으로써 그 자신이 중국왕조로부터 받는 평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이 조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3가지를 간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벼농사나 금속기 문화가 한반도 남부에서 북규슈로 전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볼 때 일본식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조선과 왜의 관계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하고 문헌 등에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역 외교에 대해서는 조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조 선생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법중 :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稻作文化와 청동기문화의 한일관계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큰 틀에서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나누어져서 설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稻作文化는 기술을 가진 집단의 이동이 전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범씨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집단을 통해서 왔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의미가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동기, 철기 등 금속문화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새롭게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는 별도의 전혀 새로운 청동 문화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동일한 형태로 일본까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의 접근,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만, 사실 고조선과 관련된 왜와의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것과 사실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을 때, 오히려 고고학적인 세형동검 문화로 상징되는 문화의 상당한 파급이 고조선으로부터 끊임없는 많은 인구이동이라고 할까, 그런 남쪽으로의 이동이 있었을 때 그 연결고리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맥락의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가 좀 더 문헌적인 내용을 보완하면 실상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하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다 선생님께서 중역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중역 외교의 성격은 아무튼 중역 국가나 피중역 국가나 종족과의 관계에서의 부용적 관계라는 것은 갑자기 돌출된 것은 아니었고, 고구려와 숙신과의 관계라든지 백제나 신라와 주변국가 또는 다른, 제가 모든 중역의 사례를 미처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부용국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국가 간 상하관계의 양상을 설명하는 용어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적인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 조 선생님 말씀의 앞의 2가지는 하마다 선생님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

고 계십니다. 3번째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다 선생님, 좀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濱田 : 아니요. 여기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의 견해에서 그 속에서 좋은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조 선생님과 3가지 테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김태식 : 그러면, 다른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坂上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稻作의 일본으로의 전래에 대해서는 역시 조 선생님의 말씀하신 대로 집단에 의한 이주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일본 학계에서는 결국 그 이주의 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문제시될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좀 전에 조 선생님이 ‘남으로, 남으로’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계기라는 것이 어찌면 중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란이라든가 그런 원인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일본에서는 稻作의 전래에 대해서 역시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법종 : 예,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다양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교류나 그에 연결되는 인구이동이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예측하기는 참 힘들고 기왕에 남아있는 중국 사료에 몇 개 그 정치적인 격변이랄까,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지만, 사실 그 인구의, 사람의 이동을 한두 개, 몇 개의 사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는 데에 당연히 동의했지만, 그것을 특정할 수 없는 지금은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요소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전부터 이미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네트워크 선상에서도 이러한 이동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아무 것도 없는 신천지를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교류의 하나의 연장선 속에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식 : 이 문제는 일본에서 바라보는 ‘대륙’이라는 용어와 한국에서 바라보는 ‘대륙’이라는 용어에 관점 차이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대륙에서 왔다고 하면 한반도를 포함해서 대륙으로 표현하는 많은 사료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대륙이라고 하면 거의 중국과 동일시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쪽 두 분께서 어떤 식의 관념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坂上 : 모리 선생님!

森 : 경우에 따라서….

濱田 :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森 : 통상 문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요컨대 대륙이라고 할 때에 중국, 한반도를 포함하여 말 할 때도 있고 한반도라고 할 때는 한반도라고 하고 구별할 때도 있습니다. 대륙문화의 전래라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아스카(飛鳥) 문화 등도 크게 말하면 대륙문화의 전래라고 하면 서술방법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에는 백제라든가 고구려라든가 하는 한반도의 문화가 온 것인데, 그것은 역시 폭넓게 대륙문화의 전래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대륙이라고 할 때에는 결국 양쪽 모두 한반도·중국을 포함할 때도 있어, 좀 용법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태식 :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동기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했을 때 그 청동기문화는 세형동검 계통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중국에는 없는 것이고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청동기 자체, 제작기술 자체는 중국에서 전래했다고 해도 문화 전반은 한반도에서 양성된 한국고대문화이지요.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지, 중국계통의 것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법종 : 문화계통의 구별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문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濱田 : 문화를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 국소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에 사카우에 선생님과 조 선생님의 논의를 듣고 생각한 것이, 문화는 사람과 함께 전래된다고 하는 면과 문화의 구체적인 작품이 전파된다고 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고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가운데 고대 한국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고,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디에서 온 걸까? 고조선 이래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일까? 일본에서는 ‘도래인’이라는 주제로 일정 집단이 국가형성에 활약한 것에 관심이 미치는데, 한국에서도 도래, 사람의 이동, 외부에서 사람이 이동해 온다는 것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의 稻作의 전래라든가 청동기의 전래 같은 것은 그 청동기만이 남한 것이 아니라 역시 북방에서 사람이 이동해 온다는 문화의 전래와 함께 사람의 이동이라는 것도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법중 : 예,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동아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면 중국문화의 외연 확장의 틀을 전제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되겠지요, 문헌역사학 쪽에서는 그게 좀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선사시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대 선사로 갈수록 중국의 또는 우리가 구체화하기로는 中原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화는 상당히 작았고 파급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훨씬 뒤에 가서 그 영향성이 강해진 것이고, 오히려 북방의 문화라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문화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취급되거나 약하게 설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 일본이나 한국은 언어·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중국은 전혀 다른, 그러한 문화적 계통을 갖고 있는 흔적만을 봐도, 연결고리의 흔적이나 연결고리가 중국의 어떤 영향성을 받았다고, 특히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언어적인 현상의 결과만 역으로 추정해 봐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언어문법·구조적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어떤 문화

가 한국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큰 예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한국의 문화의 특이성이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게 연결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한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인 양상이 이제 하마다 선생님이 지적하기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 그것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구체화된 섬으로 된다면 그 연결고리나 루트가 단순할 텐데, 한국은 결국은 거대한 아시아대륙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저 북방의 문화가 특히 강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의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독자성이 특별하게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그런 큰 틀의 인식을 갖되 동아시아사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문화의 외연 확장적 공간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북방 유목·수렵으로 상징되는 문화와 연결된 그런 어떤 문화 생태적 양상의 연결고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청동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첫 출발에 고조선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인식 틀을 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坂上 :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학적인 면에서 말씀 드리자면, 역시 이 북방, 시베리아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아도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현재의 일본인의 선조가 도래해 온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홋카이도(北海道) 경유인지 한반도 경유인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하여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반도’라는 식으로 한정시켜버리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가 한반도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해 버립니다.

지금의 한국 문화의 바탕이 된 것은 아마도 중국의 동북부 주변, 전부를 포함하여 상당히 일체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 ‘한반도’라는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오히려 지금의 영역에 얽매어 버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대륙’으로 표현하는 편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법중 : 아! 예, 절대 한반도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북방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한반도와 지금의 만주, 말씀하신 중국의 요녕이나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공간이 세칭 中原의 농경문화로 대변되는 중원 문화와는 독자성을 갖고 있는 별도의 문화권이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반도와 만주를 포괄하는 그 어떤 문화적 성격이나 특성, 그런 내용이 한국의 청동기 문화라든지 고조선이라든지 그 연결고리에 고구려, 그 이후의 역사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하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와 연계를 짓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뭔가 대륙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중원 문화만으로 국한되어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문화계통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인들이나 학자들 간에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대륙이야기를 제가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김태식 : 지금까지 논의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로 한정된 것 같은데, 10분만 더 논의를 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와 연결하기 위해 3세기 단계의 한일관계의 현상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세기의 한일관계에서 조법중 선생님이 중역외교, 즉 중국에 통역을 해주는 나라와 통역을 받는 나라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坂上 : 제가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조 선생님께서 이 ‘부용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선생님께서도 3세기 이 테마와 관련하여 질문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이라는 것이 과연, 물론 직접 대방에 갈 경우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경유하여 외교관계를 성립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魏 등은 야마타이국이 한반도의 부용국이라고는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그 부용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역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법종 : 예, 사실은 그 문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상으로는 지금 魏와
 晉과의 관계에서 중역이라는 기록이 이번에 제가 연구한 속에서는 2건이 확인이 되
 었는데요, 그 나머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아쉽
 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역이라는 동아시아, 특히 東夷세계에서의 외교관계, 다른 사
 례를 유추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속신관계라든지, 백제의 신라,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양상인가를 유추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정치
 상황, 양상으로 볼 때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또 그 양상을 크게 벗
 어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濱田 : 이 건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구체적인 검토는 사카우에 선생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군현지배라고 하는 관계가 끼어들었을 때에, 그 때까지의 반도와 열도지역
 의 여러 세력 속에 새롭게 어떤 관계가 생겨날까 하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계속해서 뒤까지 이어집니다.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작은 정치세계 속에서
 강력한 권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의 관계로부터 양자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움직이려 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는 오
 후의 토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5왕이라든가 중국왕조에 대한
 외교의 형태, 또는 백제, 고구려가 중국과 어떻게 외교를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의 초
 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제가 너무 시간을 압박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
 단 오전의 첫 번째 주제, 고대 한일관계 성립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5분 쉬고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1) 4세기의 한일관계

김태식 :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일한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조법종 선생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조법종 : 예, 그럼 제가 진행사회를 맡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문건자료는 김태식 선생님 것이 있습니다. 모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지요? 아, 죄송합니다. 하마다 선생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좀 하마다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새롭게 하마다 선생님께서 칠지도 명문을 바탕으로 한 일한관계 그리고 광개토대왕비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濱田 : 예, 제가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2 주제인 <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4,5,6세기->라는 범위 속에서 제1장의 ‘4세기의 일한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일한관계를 고려할 때의 2가지 주제로서 칠지도 명문의 일한관계, 즉 백제와 왜국의 국제관계라는 주제와 광개토대왕비문의 일한관계, 즉 고구려, 신라, 왜국의 국가형성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1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어서 제1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 두 자료에 대해서 크게 연구방법을 바꿀 정도의 연구 동향,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칠지도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 미세하게 연구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크게 말하자면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남하라는 큰 압력 하

에서 왜국에 칠지도를 보내 원군을 요청했다. 칠지도는 그 기념이라고 할까요, 기념비적인 답례품으로서의 칼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보면 371년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의 병사에 의해 평양에서 전사해 버리는 고구려와 백제와의 큰 전투 속에서, 이미 왜와 왜인 병사가 백제군 속에 원군으로 가담하고 있었고 그 전승에 대한 기념품으로서 왜왕에게 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칠지도가 백제에서 作刀되어 그리고 왜국에 보내졌다, 그 국제적인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습니다만, 요컨대 백제와 왜국이 군사적인 제후를 맺은 것을 상징하는 기념품으로서의 칠지도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의 백제는 東晉과의 관계를 배경에 두고, 東晉, 백제, 왜국이라는 제후를 백제가 적극적으로 맺는, 그런 백제의 적극적인 외교자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친 일한관계를 고려할 때에 중요한 사료인 광개토왕비문에서의 왜와의 관계기사를 해독하고 다른 문헌사료와의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1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그 이후 이 비문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크게 해석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문의 탁본에 대해서 비문에 관한 기본 사료 연구는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선생님에 의해 지금까지의 연구 또는 그 후의 연구가 정리되어 2권의 저서로 출판되었습니다.

다케다 선생님은 이른바 辛卯年條에서 현재는 읽지 못하는 부분의 한 글자를 ‘東’이라는 글자로 읽고 “왜가 백제를 무찌르고 동쪽으로 가서 신라를 □했다”는 식으로 새롭게 ‘東’이라고 읽은 것이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광개토왕 시대의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격렬했던,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17년에 걸친 전쟁을 거쳐 5세기의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외교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의 연구는 마치고 모리 선생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조법종 : 오늘 새로 나눠주신 두 자료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어떤 그 새로운 입장이랄까요? 사실은 기왕에 연구하셨던 내용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다만 칠지도는 4세기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백제의 원군을 보낸 것에 대한 답

레폼으로 일본학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다케다(武田) 선생님에 의해서 한 두 가지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일부 신라와의, 고구려와의 관계를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입장 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의를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김태식 선생님이 준비하신 것을 지금 발표하시겠습니까? 그럼 모리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 김태식 선생님과 연결하여 총괄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노태돈 : 오전 시간을 고려한다면 다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조법종 : 예, 그러면 4세기에 대해서만 하시고 김태식 선생님의 1,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4세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발표하시고 논의를 오전 시간에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식 : 그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서기》 神功 49년조 해석을 통해서 369년의 왜의 임나 정벌을 사실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근래 학계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임나일본 부설은 붕괴되었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사료 즉 神功 49년조의 가치와 성격 및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제 각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개 그것이 일본 가나이(畿内)의 야마토(大和) 세력의 파견군인데, 각국의 대등한 국제관계 속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왜군들의 수가 고구려의 대군과 맞설 만큼 많지 않았고 무장상태도 가야에 비해서 빈약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상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倭賊 또는 ‘왜군’은 가야·왜의 연합군이었다고 보이는데 비문에서 이를 왜군으로 과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이 마찬가지로 같은데 고대사에서 한일관계사에서의 중심지역은 가야지역인데, 가야지역의 독자적 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세기 이전의 전기 가야는 경남 김해의 가야국 또는 김관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가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국연맹체였고, 5,6세기 후기 가야는 경북 고령의 가야국 또는 가라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고령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국연맹체였으며, 6세기 전반에는 가야 북부지역에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가 4,5,6세기에 3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라나 백제에 비해서 작은 세력이었다거나 분열되어 있어서 힘이 없었다거나 하는 인식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조법중 : 예, 지금 김태식 선생님께서는 3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서기》 神功 49년조의 해석에 대한 기왕의 학계의 연구 성과가 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임나일본부설의 대변자였던 이 사료의 부정은 결국은 임나일본부설을 이해하는 인식의 이른바 일본적인 인식의 틀이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논의할 것인가를 좀 보다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왜군의 성격은 가야·왜의 연합군이 과장되어서 ‘왜’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의 독자 왕권에 대한 한일 양국 학계의 인식이랄까, 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독자 왕권, 독자 국가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마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濱田 : 제 견해를 말씀 드리자면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특히 神功皇后紀 49년조 또는 52년조 등 한반도 남부지역, 가야, 백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중심의 역사상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음미하면서, 분해해 가야만 하는 그런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서기》의 이른바 한반도 관계 기사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자세입니다.

49년조는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神功皇后의 군대에 의해 정복된 이후 조공을 서약했다는 그런 기사였다고 기억합니다만, 그 기사의 액면 그대로는 부정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후세에 《일본서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일

한, 한반도의 지역과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이든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돌아보면서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의적인 역사상입니다만, 전혀 황당무계한 망상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森 : 49년조는 가야 7국 평정 아닙니까?

濱田 : 가야 7국 평정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369년은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를 평정했다는 기사라고 말했습니다만, 모리 선생님의 지적으로 가야의 칠국평정기사라고 정정합니다.

광개토왕비에 나타나는 倭寇 또는 倭賊은 가야와 왜의 연합군이 아니었나, 그것을 비문에서 왜군을 굉장히 크게 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격파한 고구려군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의 倭寇, 倭賊의 존재는 비문에서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힘을 작게 평가하는 견해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광개토왕의 군대가 5만의 보·기병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 수치였는지 어땠는지. 광개토왕비문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백제를 조공국으로 만들지 못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국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倭賊도 최종적으로는 근절시키지 못했고, 가야도 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5만의 군대를 두 번 정도 파병했어도, 한반도 전체를 고구려의 지배하에 넣지 못했다. 그리고 또 7세기까지 그토록 대단하던 고구려가 이 반도 전체의 유일한 왕권국가로서는 성립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일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구려의 5만 병사라는 숫자가 실제 수치였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문에서는 고구려와 적대하던 倭賊에게는 倭賊 단독이 아니라 역시 백제군이나 가야 병사도 마구 뒤섞여 있지는 않았더라도, 제휴해서 고구려군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가야는 매우 재미있는 지적으로 역시 ‘현대의 가야 국왕’이라고 할까, 가야 전문가이신 김 선생님께서 가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신 지적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에 비해 가야는 지리적으로는 낙동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에 걸쳐져 있다고 하는 한정된 자연조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서쪽에 백제, 북동에 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에 왜로 세 방향이 둘러싸여 있다. 그 세 방향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등이 있어서 이 가야 소국은 소국연맹체에서 독립된 고대국가로서는 매우 어려운 코스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도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하면, 가야는 작은 세력이었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을 바꾸면 왜국의 문화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김태식 : 우선 神功紀 49년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에 조공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가야 7국 평정에는 뭔가 좀 사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까?

濱田 :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견해를 도출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어떤 사실을 반영한 기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7국을 평정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평정’이 아니겠지만, 이 369년의 반도와 열도의 국제관계를 생각해 볼 때,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 때에 왜인 병사들도 백제군에 참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학설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런 학설을 논하는 사람들은 그 왜인 병사들은 가야지역에서도 어떤 공동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그런 공동행동을 후세에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상으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일본서기》의 神功皇后紀 49년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입장인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 역사서는 완전히 공상, 자기에게 유리한 공상이라고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역사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문헌사학자인 제가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단, 가야 7국을 평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부정되지요. 평정이라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는 해석으로 말하는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점거했다는 의미의 ‘평정’이라면 그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 49년조는 완전히 짝 지워버려도 되나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그 핵이 되는 것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김태식 : 우선 4세기의 한일관계는 문헌이 아직은 불충분한 것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일관계의 추세는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토대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4세기에는 가야지역에 김해라는 중심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가야국이 다른 지역의 전체 가야지역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규모, 또 10배 이상의 부장품을 내는 고분이 형성되어서 가야지역에 분명한 중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본열도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일본열도도 3세기 후반부터는 긴키(近畿) 지방에 세력의 중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중심지의 고분 규모라든가 부장품의 수준은 신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한일관계는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또는 제작된 철의 소재가 가야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관계, 이러한 것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서는 일본지역이나 가야지역에서 백제계통의 유물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한일관계는 일단 가야지역과 일본 긴키 지역과의 긴밀한 교역이 기본이 되는 것을 토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神功紀 49년조는 왜군과 백제군이 혼합이 된 왜군이 가야 7국을 평정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하여 《일본서기》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欽明紀에는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백제 聖王이, 그 당시에 근초고왕 때에 가야와 백제는 형제관계를 맺었고, 그 때부터 친하게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사실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의 백제가 김해의 가야와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 때 백제는 간접적으로 왜와 연결되었을 뿐이며, 거기에는 어떤 군사관계라든가 군사적인 복속,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마다 선생님의 견해를 보니, 7국 평정이 아주 공상은 아니고 뭔가 있을 것이고 사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372년의 칠지도를 백제가 보낸 것이라고 보시고 그것은 아마 369년조의 왜군의 공헌에 대한 백제의 보답이 아닌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49년조의 사실성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濱田 : 오해입니다.

김태식 : 동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철검에 이렇게 명문을 새긴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대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칠지도도 역시 그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지도를 4세기 372년의 시기로 인정하게 되면 역시 369년조에 뭔가 조금 더 사료적 표현과 비슷한 사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 그 369년조, 즉 神功紀 49년조는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에 대하여 조금 더 분명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濱田 : 저도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 중시되지 않았던 《삼국사기》 속의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인의 동향, 즉 3세기, 4세기, 5세기에 걸쳐서도 왕성하게 신라를 침입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한관계사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 神功皇后紀 49년조 또는 칠지도, 광개토왕비문을 통하여 본 일한관계 속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인의 동향에 대해 어떤 위상을 부여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모여 회의를 한 후에 서로 기록을 만들어 대조하고 합의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가야와 왜가 무슨 일을 하고 직후에 기록을 교환하면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관계가 있었고, 그 일을 시대가 흐른 후에 각기 역사관을 가지고 각각의 국가를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관계를 기록할 때, 여러 가지로 과장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서술을 해 버립니다. 이걸 여담입니다만, 평정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말하는 7국을 ‘평정’했다는 것은 부정되더라도, 거기에 왜와 가야가 어떠한 관계·교류가 있어서 그 배경에 그 저편에 백제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라는 중국 남조의 東晉과 백제, 가야, 왜라는 그 연계, 이것은 그 3세기 후반 이후 형성됩니다. 북방의 고구려 또는 중국 北魏, 중국 북방의 왕조와 고구려·신라라고 하는 북쪽 라인도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문맥에서 이 4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를 생각할 때, ‘평정’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가야지역과 왜인, 왜와의 사이에 관계사가 형성되었다.

가야도 연합체이고, 일본열도도 야마토를 중심으로 북부 규슈 지역 또는 세토나िका이(瀬戸内海) 지역 그런 곳을 연결하는 연합체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봐도 될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7국 평정이라는 것은 부정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는 있다. 그 관계는 군사적 ‘평정’인가 아니 협력인가,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평정’이라고 기술한 것뿐이며, 실제로는 ‘제후’였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태식 : 제가 지금 막 들어보니, 하마다 선생님의 대답에 좀 발전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칠지도를 말씀하시면서 東晉과 백제와 왜의 관계가 거기서 보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東晉과 백제와 가야와 왜의 관계가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마다 선생님께서 가야를 인식하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가야 7국 평정이 부정되지만 교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백제와 倭 사이에 가야 칠국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백제와 왜가 연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新羅本紀>에 나오는 왜인들이나 왜병들의 동향인데, 결국 왜구나 왜병은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존재로만 많이 나오다가 끊어지게 됩니다. 역시 그것은 그 당시에 왜병이 상당부분 가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왜병은 결국은 가야와는 친했지만 가야의 경쟁자였던 신라 측을 일정하게 공격하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의 동향을 고고학적 동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올바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 편년 상으로는 조금 조정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神功紀 49년조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법중 : 사실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연장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끝낼까요? 예, 혹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森 : 두 가지입니다. 神功紀 49년조에 관한 것인데요, 다음의 그 5,6세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일본서기》의 근본이 되었던 그 이른바 ‘백제계 사료’라는 것, 즉 神功 49년조에는 그 왜와 백제가 협력하여 가야 칠국을 평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제에 합병시켰다고 되어 있으니, 거기에는 역시 그 백제의 입장에 선 주장이라는 것도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기 보다 거기에 《일본서기》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백제계 사료, 그

런 백제의 눈으로 본 왜라든가 가야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만, 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일한 양국 모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만, 우리 연구회에서 일본에 오셨을 때에 역시 각 지역에서 가야계의 유물과 한국식 토기가 있어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가야 토기가 들어왔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야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기에 일본의 어떤 지역에 들어왔나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그 문헌사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부탁이랄까 주문이랄까, 이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지만, 가야사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좀처럼 없으니까, 부디 한국의 가야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 즉 가야의 어떤 지역의 토기가 어디에 갔고 또 다음에 어떤 시기에 갔는지를 규명하면, 역시 문헌이 적은 4세기의 왜와 가야의 구체적인 관계가 하는 것이 판명되지 않을까? 이것은 감상과 부탁입니다.

김태식 : 모리 선생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연구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으로서 맞는 말씀이고, 神功 49년조에 백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神功 49년조는 연구자라면 대개 아시다시피 거기에 ‘평정’이라는 용어라든가 그 중의 일부는 한 세기 더 한 갑자 뒤로 돌려야 할 사실들이 있다든가, 荒田別, 鹿我別과 같은 일본 장군의 이름은 사실이 아닌 어떤 가족 전승이랄까, 일본의 가문 전승에 의한 것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하는 사료적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神功 49년조에 기본적으로 백제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의 왜곡도 상당히 많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태돈 :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 분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첨부하겠습니다. 금석문하고 문헌자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금석문이 가지는 가치는 문헌자료가 전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항을 당대의 금석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는데, 지금은 칠지도 명문과 神功 49년조의 기사를 놓고 봤을 때 칠지도 명문을 이해, 명문을 통해서 神功 49년조나 그 당시의 백제와 왜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점에서 칠지도 명문을 주목했는데, 칠지도 명문을 논의하다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문헌자료, 神功 49년조를 위시한 그런 문헌자료를 통해서 칠지도 명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처음 금석문에 주목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과는 달리 금석문을 통해서 문헌자료의 다른 측면을 이해한다는 시도, 기대와는 달리 역으로 기존의 문헌자료를 통해서 금석문을 해석하는 시도를 해 나가려는 면이 좀 보이는데,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문헌자료와 금석문의 통합·이해라는 측면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시된 글들을 보고 있으면 이 관계가 계속 순환관계로 계속되어 버리지, 새로운 돌파구라든가 새로운 진전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칠지도 명문이 당대의 1차 사료인 칠지도 명문에 대해서 좀 더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시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법중 :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아무래도 또 혹시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한 두 개 더 첨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4세기까지의 고대 한일관계, 고대 왕권의 등장과 한일관계에서의 4세기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 5~6세기의 한일관계

조법중 : 네, 그럼 오전 4세기까지 진행된 내용에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는 5세기, 6세기 이후의 김태식 선생님, 그리고 모리 선생님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모리 선생님 먼저 하실 수 있겠습니까?

森 : 그러면 구두로 발표하겠습니다. <고대 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중에서 저는 5세기 6세기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 또는 4세기를 포함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측의 고고학적 성과의 진전,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의 발견이라든가 그 가야 제국에서의 다양한 발굴 그리고 백제의 6세기의 왕도, 공주와 부여의 발굴, 혹은 최근의 彌勒寺와 王興寺 같은 절의 발굴, 이런 새로운 사료가 추가됨에 따라 역사를 다른 시

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뿐 아니라 출토문자 사료, 특히 백제나 또는 함안의 城山산성과 같은 신라의 6세기의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7세기 중반 경 이후의 목간이 있지만, 6세기의 목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은 다음의 사카우에 선생님과 노 선생님의 담당 부분인 율령체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되지만, 여기에서도 그 고대왕권의 확립을 고려할 경우에 그 통치제도나 사무조직과 같은 것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성과의 진전의 그 효과라는 것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새로운 성과를 향후에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고찰해 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새로운 고찰재료를 고려하여 5, 6세기에 대해 말하자면, 역시 그 ‘임나일본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역시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든가 또는 한반도 남부를 이 시기에 야마토 정권이 영토적으로 영유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로라고는 못해도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의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왜인의 활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5, 6세기의 일한관계를 고찰할 때 큰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5왕의 칭호 문제라든가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을 만든 주체 또는 ‘임나일본부’라고 할까요, ‘在安羅諸倭臣’말이지요. 安羅에 있던 여러 倭臣들의 활동의 실태는 어떤가 하는 것이 각각의 시대의 개별적인 논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역시 한국측의 연구에서는 이런 활동을 용병적 혹은 그 안라 등에 예속된 왜인의 활동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측은 역시 왜국 측의 주체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생각해 나가는 연구의 하나의 관점이랄까, 그것은 각각 한국사 혹은 일본사의 입장에서 그 활동을 어떻게 파악하려 하는지에 많은 부분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역시 왜국 측의 주체성 즉 야마토 왕권의 외교 정책과 일본 각지의 지역의 유력 호족과 한반도의 활동, 그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아직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을 새로운 고찰 재료로 삼아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든가,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문헌자료 말인데요,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은 좀처럼 금방은 정리되지 않는, 또는 영원한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결국 그 시기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일한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자료의 문제로서 말입니다. 《일본서기》의 임나문제입니다. 繼體紀, 欽明紀 부분은 여기는 이른바 백제계 자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베이스로 하여 외교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그려진 것은 백제에서 본 안라나 신라에 대한 관점 또는 거기에 왜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식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편이 《일본서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근래의 문헌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자료에 더 가치가 있다거나 어느 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각각 그 일면이랄지, 즉 《일본서기》라면 어느 쪽인가 하면 백제가 본 가야와 왜가 비교적 나오는 데에 반해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본 가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6세기 가야를 둘러싼 문제 속에서의 각국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가는 것이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고, 더욱 연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법증 : 예, 다 요약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고고학계의 다양한 성과로 인해서 기왕의 임나일본부설의 입장은 새롭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반도에 출격했던 ‘임나일본부’라는 설은 이제 거의 0%라고 할 순 없지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이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왜인의 활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 주셨습니다. 특히 《삼국사기》가 신라 입장에서 가야라든지 왜를 봤다면, 《일본서기》는 백제의 입장에서 가야와 왜를 봤던 그런 내용들의 관점이나 관심의 차이를 염두에 두는 연구랄까요,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는 전망 중심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논의는 아무래도 김태식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의 4번부터 7번까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연결된 것 같아서, 김태식 선생님 발표를 함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식 : 그동안 모리 선생님과 제가 5, 6세기 한일관계사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면서 모리 선생님이 일본학계나 우리 한국학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종합해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는 점은 역시 가야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즉 가야사를 중심에다 놓고 보는 시각은 아직 없고, 주로 백제와 왜와의 관계, 왜를 중심으로 한 백제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신라도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고 가야도 거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과 합쳐서 몇 가지로 쟁점을 나눠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쟁점을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는 것과 논문에서 그 동안 발표하신 것에서 받는 인상이 조금 느낌이 다른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견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세기 한일관계사에서 쟁점이 《宋書》倭國傳에 나오는 왜 5왕이 七國諸軍事號를 자칭했는데요, 그 자칭호, 七國諸軍事號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왕 武가 479년에 보낸 상표문을 볼 때, 그는 한반도 남부에 일정한 군사적 권리가 있음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민정적 권리는 없기 때문에 지배권과는 관련 없다는 것까지는 모리 선생님과 저의 이해가 같은 것 같은데, 모리 선생님은 제군사호를 인정받으려는 데에는 왜왕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는 점인데, 제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표현해도 좋을지, 한번 모리 선생님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5세기 한일관계에 있어서, 고고학계에서 근래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전남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10여기의 전방후원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분 축조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재지 주장으로 보는 견해와 왜인으로 보는 견해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공동연구에서 느낀 바로는 모리 선생님이 전방후원분의 축조세

력을 왜인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다시 한 번 쪽 살펴보니 왜인으로 보는 견해가 왜인 이주민으로 보는 견해와 왜계 백제관료로 보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재지 수장으로 보는 견해가 일리가 있는 것처럼 썼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재지 수장으로 보는 견해에 찬성하시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6세기 한일관계사의 쟁점이 《일본서기》欽明紀에 보이는 ‘임나일본부’라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크게 임나 지배설 계통의 4가지 종류와 외교 교역설 계통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것에 군사적인 성격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전형적인 임나지배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래 학계의 추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임나, 즉 가야에 설치된 일본의 지배적 관청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용어 자체를 ‘安羅倭臣館’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료를 본 것을 정리해 보면, 이 ‘安羅倭臣館’이 그 구성원은 왜인과 왜계 가야인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존속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처음에는 530년대 후반에 백제에 의하여 왜와의 교역을 명목으로 安羅에 설치되었지만, 540년대에 곧 성격이 변화되어서 가야연맹의 제2인자였던 安羅國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였던 외무관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리 선생님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어감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법종 : 일곱 번째는 안 읽으시겠습니까?

김태식 :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조법종 : 지금 김태식 선생님께서는 모리 선생님과 연구 과정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 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왕 武가 자칭한 七國諸軍事의 성격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영산강 유역에서 나타난 전방후원분의 축조세력이 재지수장으로 보시는 것인지, 왜인 계통으로 보시는지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安羅倭臣館’으로 고쳐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모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森 : 저는 조금 전에 개괄적인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김태식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일한 양국의 대체적인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통된 인식도 형성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역시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나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지적하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야사에 대한 이해가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려진 것이 역시 좀 전에 잠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혹은 백제가 적대시하는 신라와 고구려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왜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술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가야사의, 가야 제국의 상세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잠시 말씀 드렸다시피, 일본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가야계 토기와 가야 제국, 그리고 일본 제국, 일본 각 지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역시 가야와 왜와의 관계라는 것도 염두에 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연구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세기의 諸軍事號 문제인데요, 우선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사권이며 그 영토의 영유 또는 민정권은 일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일본 학계에서도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5왕시대 동안 몇 번이나 그 지역의 군사권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국측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역시 그런 것을 일본, 왜국 측이 신청을 하고 중국이 인정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선 고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왜의 5왕, 특히 왜왕 武의 상표문에서는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싸운다. 그런 속에서 7국이니까 백제의 군사권도 신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측은 그것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반도의 남쪽지방과의 관계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백제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다음 문제인 전방후원분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慕韓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지역이 물론 왜는 아니겠지만, 백제도 아닌 독자적인 지역이 있었고 거기와 어떤 실태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일본 측에서는 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 실효성을 찾을 가능성이 없을까 하는 연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방후원분의 성격은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혹은 김태식 선생님도 좀 전의 4세기 부분에서 약간 소개하셨지만, 5세기도 포함하여 의외로 왜와 백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빠져버린 것 같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서 불교와 유교라는 백제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5세기 말과 6세기라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아서, 그런 5세기의 왜·백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왜와 백제 사이에 있는 영산강 유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후원분은 일본, 왜의 독특한 고분 형태이기 때문에, 즉 시각적인 면에서 왜와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만들었나 하는 것도 그 전방후원분의 출현을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다양한 설이 있고,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향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보고서 속에서 그런 왜도 아니고 백제도 아닌 이른바 왜왕 武의 상표문 속에서 군이 말하자면 慕韓이라는 그런 지역의 독립성, 혹은 아직 백제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자립성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이 5세기의 이 지역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방후원분을 만든 주체는 재지 수장이거나 또는 좀처럼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재지화한 왜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백제왕권의 발전과 일한관계, 즉 백제·왜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관점에서 전방후원분 문제를 고찰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6세기의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실태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군사적인 성격이라든가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은 거의 부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7세기 말 경에 만들어진 단어이고, ‘府’라고 하는 말은 역시 관청이나 기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安羅倭臣館’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在安羅諸倭臣’, 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임나일본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는 점에 관해서 김태식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도 역시 한국사를 주체로 볼 것인가, 일본사를 주체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역시 저는 아무래도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는 在安羅諸倭臣과 安羅를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고, 在安羅諸倭臣의 활동은 安羅나 가야 제국의 이해와 합치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在安羅諸倭臣이 安羅 밑에 예속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安羅에 있는 왜인들이 어느 정도 자립된 활동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역시 약간의 의견 차이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법증 : 두 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답이 되셨습니까? 김태식 선생님?

김태식 :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安羅倭臣館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安羅에는 독자적인 왜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리 선생님은 현재의 사료를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문을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만 세 번째 문제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지수장을 긍정하시면서도 在地 왜인일 수도 있다고 해서, 역시 불분명하시네요.

森 : 在地 왜인이라고 할까, 在地化한 왜인이지요. 그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 사람과

다름없어지는 것이니까 좀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식 : 두 번째 그 전방후원분의 축조 세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아직 조금 더 증거를 기다려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왜왕 武의 상표문의 의도는 왜왕이 백제를 지원하면서 고구려와 싸우고자 하는 데 있었고, 그런 의도에 의해서 七國諸軍事號에 백제 등 칠국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백제를 지원하면서 고구려와 싸우고자 했으면,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군사호에 백제가 빠지고 고구려가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대인데도 왜왕이 백제를 지원하면서 고구려와 싸우고자 그런 군사권을 요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森 : 고구려의 군사권을 왜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백제에서, 신라에서, 남쪽 한반도 전체와 손을 잡은 군사권, 그런 왜의 군사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고구려의 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일본서기》에 나오는 5세기, 6세기 상반까지의 왜군의 활동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왜군들이 신라지역에 가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백제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시기의 왜군은 가야지역으로부터 기술, 또는 기술자를 받고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 저기 군대에 가야인들과 함께 파견되어 활동하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역이 남한 지역 전역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군사호에 나오는 지역이 오히려 명백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싸운다든가, 뭐 이런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추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야를 통해서 백제나 신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고 고구려와 싸운다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森 :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드시피, 5세기 왜와 백제의 관계는 의외로 원활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에서는 역시 5세기 특히 5세기 후반, 나제동맹, 신라와 백제
가 제휴하여 고구려를 북쪽으로 밀어낸다는 관점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
세기의 일한관계를 고찰해 가는 가는데 역시 왜와 백제의 관계라는 것은 5세기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일본서기》 등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
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공유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적이랄까 기술적인 우수성과 요컨대 군사력과 정치력의 대소는 꼭 대응하
지는 않거나 정비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야가 선진 문물을 갖고 있었다
고 해도 왜가 기반이 되는 정치세력이나 군사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크게 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력과 문화적인 선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은 정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입니다만, 백제나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의 軍事號 밖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왜만이 웬지 반대로
말하자면 한반도 남쪽의 모든 지역의 군사권을 주장해야만 했다는 것도, 지금은 그
이유에 관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역시 향후에 검토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법종 : 예, 지금 논의가 두 분이 집중적으로 되면서 5王의 七國諸軍事號의 성격이나
의미 문제와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의 주체 성격 문제, ‘임나일본부’
를 오히려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다 빼버리고 났을 때는 오히려 安羅의 어떤 왜
와 관련된 성격의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정리되면서도 입장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계속적인 논의의 과제인 것 같습니
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또 좀 질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濱田 : 왜 5왕의 문제는 아니지만 김태식 선생님께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
하지 않기 때문에 ‘安羅倭臣館’이라고 바꿔 부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요. 모리
선생님 《일본서기》의 기록에는 ‘在安羅諸倭臣’이지요?

森 : 예, ‘倭臣’입니다.

濱田 : ‘倭臣’이죠. ‘諸’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수많은’이라는 의미지요.

森 : 예, 여러 가지(입니다).

濱田 :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倭臣’, 김 선생님의 ‘倭臣’, 모리 선생님의 ‘倭臣’이 왜의 신하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일본의 아마토 왕권이라는 말이겠지요. 이 ‘倭臣’. 왜인 신하, ‘倭臣’이라고 한다. 그 ‘倭臣’의 주인공은 아마토 왕권입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森 : 그럼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하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고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되는가 하는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분명 왜 왕권일까요, 아마토 왕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중국외교에 있어서는 일본열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在安羅諸倭臣’ 부분에 나오는 ‘倭臣’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토 왕권의 컨트롤 하에라고 할까,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고 있다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비노오미(吉備臣) 등 유력 지방호족이 역시 이 경우라면 安羅 지역과 관계를 갖고 그 하나의 이권 등을 지키기 위해서 安羅와 일체가 되어서 활동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서기》에서는 일단 ‘倭臣’, 넓게 말하자면 기비(吉備)도 아마토 정권의 구성원이므로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거기는 이른바 훗날의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일과는 역시 다른 단계라는 것이 5,6세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고대국가의 형성 시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倭臣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좀 명확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아마토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일본학계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태식 : 하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倭臣의 주인이 아마토 왕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일본서기》에 나오는 在安羅諸倭臣의 ‘倭臣’이라는 용어는 백제 측에서 쓴 용어이지, 일본 측에서 쓴 용어는 아닙니다. 일본 측에서가 아니라 백제가 倭臣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倭 왕조 긴키 지방의 왜왕의 신하라는 의미에서 ‘倭

臣’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백제 사람이 쓴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왜인이다, 왜인으로
서 신하다’, 그런 뉘앙스라고 보겠습니다. 사료상으로 보면 安羅倭臣館의 倭臣들이 야
마토 왕조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그들에게 대치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
어서 이들이 왜 왕권, 즉 간키의 왜 왕권의 신하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백제는 이 사람들의 선임권이라든가 하는 것이 간키의 왜 왕권에 있는 것
처럼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든가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마치 일본 전체의 대표성이 간키의 왜 왕권에
게 있는 것처럼 힘을 보태주는 측면에서 쓴 백제의 외교적 책략이었다고 생각이 듭
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倭臣’이라고 해서 그 왜가 왜 왕권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료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역시 모리 선생님과 같은 견해입
니다.

조법종 : 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安羅倭臣館은 530년대 후반에 백제에 의하여 왜와의 교역을 명목
으로 安羅에 설치되었다고 했었다면 주체가 백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닌가요?

노태돈 :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격이 변화했다고...

조법종 :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변화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신의 주종적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김태식 : 그 당시에 백제가 安羅에 보낸 사람들은 역시 백제에 파견되어 와서 활동하던
왜인 부대 또는 왜인 관료들이고, 그 중의 일부는 어떤 지방정권 또는 중앙정권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신과 같은 성격으로 와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백제
가 포섭해서 그 지역으로 파견해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던 것이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조법종 : 백제가 주체가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신다는, 그러다가 나중에 安羅로 바뀐다
는 것인가요?

노태돈 : 그 뜻을 지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安羅諸倭臣’했을 때 ‘臣’이 누구에 대한 ‘臣’으로 표기되어 있느냐? 그런데 지금 김 선생님은 백제에 대한 신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입니까?

김태식 : 왜인으로서, 관료라는 것입니다.

노태돈 : 왜인이라는….

김태식 : 왜인 관료,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노태돈 : 그럼 모리 선생님은 이 ‘臣’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일본열도에 소속된 존재다, 일본열도에 臣屬된 존재다, 그 당시의 야마토 왕으로 상징되는 포괄적인 일본열도 세력에 대해 신속되어있는 신이다, 이런 뜻인가요?

濱田 : 倭人官僚하고 하면 관료는 어떤 왕권에 대하여 ‘臣’이기 때문에 그럼 그 倭人官僚를 데리고 있는 군주라고 할까요? 왕권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요.

森 : 좀 전의 ‘在安羅諸倭臣’이라고 하는 표현은 김태식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서기》 속에서는 명확하게 백제계 사료, 즉 백제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을 일본열도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점을 야마토 정권에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제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야마토 조정에 속해있는 사람이라고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단, 《일본서기》에 묘사된 실태를 고찰해 보면 역시 야마토 조정의 직접적인 지시 등을 받고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서기》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倭臣’이 되어 버리지만, ‘왜인’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태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在安羅諸倭臣’을 백승충 교수가 ‘倭系安羅官僚’라고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濱田 :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在安羅倭臣館’ 혹은 ‘在安羅諸倭臣’이라
기 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일본의 국가가 형성된 후에 일본의 역사서를 작성할 때
‘在安羅諸倭臣’을 일본고대국가의 歴史像에서 도입하여, 이른바 호의적으로 확대 해
석하면 그것은 곧 ‘임나일본부’라는 이른바 부풀려서 과장된 표현이 되었을 것이라
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森 :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면 끝이 없으니까, 사료에 대한 면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
은 제3기(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법종 : 예, 지금 논의가 끝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일단 5, 6세기까지의 논의를 일단 이것으로 종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
겠습니까?

예, 약 15분 휴식하고, 4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김태식 : 그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로서 7, 8, 9세기의 한일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 발제문이 사카우에 선생님의 것이 아주 길고, 노태돈 선생님의 것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태돈 선생님이 먼저 발제를 해 주십시오.

노태돈 : 7, 8세기의 한일관계사에 대한 부분은 전 몇 가지 주제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 특히 일본에서 간행된 개설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검토했습니다.

첫째는 7세기 중반 대까지 양측의 접촉에서, 663년에 벌어진 白江口 전투(=白村江 전투)에 관한 서술입니다. 백제부흥전쟁과 백강구 전투에 대한 이해에서 이 전투의 양상과 성격에 대한 파악에서 주로 당군과 왜군의 대결이라는 시각에서 정리해서 신라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신라군에 대한, 신라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미흡은 그 다음 시기에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는 8세기 중반에서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과 단교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신라와 당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있는 신라와 일본과의 교섭에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8세기 중반에 터져 나온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과 단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663년에서 668년 신라와 일본 사이에 국교가 재개된 이후 양국 사이에서는 아주 긴밀한 외교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긴밀한 우호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상이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결국 발해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정

세, 당과 신라, 당과 일본 간의 교섭이 재개되는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때 7세기 중반에 벌어진 표면상에서의 제기되었던 양국 간의 마찰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나는 隣國과 蕃國이라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상이한 이해의 동상이몽이 결국 파탄을 초래하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고있고 이어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측면으로서 불교문화를 통한 양국 간의 교류 또 율령문화를 통한 양국 간의 교류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불교문화의 경우에선 일본에 현재 전하고 있는 신라인이나 백제인의 불교저술에 대한 주목은 양국의 불교의 상호 교류의 양상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동아시아 불교권 문화 내에서의 양국 간의 불교 교류의 상황 또 양국의 불교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율령과 율령체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한일 양측에서 확인되는 자료들을 좀 더 검토해서 상호 간의 율령문화의 교류에 대한 측면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크게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의 율령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간에 제가 살펴본 바를 통해서 볼 때 일본측 연구랄까요, 서술에서는 다분히 뭔가 하면 율령이라든가 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신라의 위상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라를 타자화해서 신라를 일본보다도 하위에 있는 그런 실제로 인식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대 일본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근대사학의 정점의 시기에 일본사학에서 내세웠던 주요 특성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대 한국과 일본 상호 간에서 상대를 타자화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동아시아지역 역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상호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이해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 지역의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양 지역 주민 간의 교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위해서

는 양국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한 이후에 그런 관념에 입각해서 그 전 시기를 이해하고 정리한 자료 그리고 근대 초기에 국민국가 정립 시에서 제기되고 통용되었던 역사인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양 지역 주민간의 교류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전반적으로 7, 8, 9세기의 한일관계에서 신라가 소외되거나 소홀하게 보이고 있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세기는 모리 선생님 그리고 8, 9세기는 사카우에 선생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모리 선생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森 : 저는 이 중에서 7세기를 담당했습니다. 7세기에 관해서는 역시 지금까지의 4, 5, 6세기와는 크게 다른 점이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것이 주제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隋와 唐 등 중국에 강대한 국가가 출현했을 때에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가운데에서 일한관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간다는 점이 이전 세기와는 다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본 측에는 고대국가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3·5·7논쟁 즉 3세기 야마타이국(邪馬台國) 단계에서 고대국가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것인가, 5세기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축조되던 단계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7세기의 중앙집권적인 울령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고대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역시 고고학자들은 앞의 2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울령국가라는 것이 고대국가의 하나의 완성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방후원분체제에 대해 이야기 한 쓰데 히로시(都出比呂志) 씨 등도 6세기가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좀 전의 6세기 문제를 7세기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연구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7세기에는 고대국가가 성립되니까, 한반도 쪽에서는 통일신라가 반도 전체를 통일하고 한편 일본열도 쪽에서는 왜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울령국가가 성립되어간다. 그 속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이 보다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런 6세기까지의 일한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7세기 이후에 대한 관점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여기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白村江戰 때의 신라에 대한 평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7세기 시점에서 고대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 명확한 국경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전에는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 중에 한반도의 역사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별개의 나라라는 의식이 있으며, 그 부분은 신라 역사이지, 일본 역사가 아니라는 점도 있어서, 역시 7세기 이후의 신라가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세기까지의 일한관계를 보는 관점과 신라의 위상이 조금 변화한다는 점이 좀 전의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감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노태돈 : 그것에 대해서 백강구 전투를 하나의 포인트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리 선생님께서는 “7세기 후반 들어서 일본에서의 율령국가의 성립이 그 전 시기와는 달리 국경 관념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신라에 대한 저평가 혹은 신라에 대해서 백강구 전투와 같은 데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본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그러한 7세기말 이후에 일본에서 성립되어 있는 사료를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근대의 일본사학에서 왜의 어떤 역사인식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또는 근대조선을 상대화, 타자화해서 일본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그러한 인식이 작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령국가, 율령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의 율령문화에 대한 이해가 근대사학에서 근대일본사학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내지는 충분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증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부흥전쟁에서의 실질적인 주력은 신라군이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율령문화에 관해서는 신라에서는 6세기 대에, 백제에서도 6세기 대에 들어오면 율령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령체제’라고 굳이 ‘체제’란 말까진 붙이지 않더라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법률체제

로서의 율령은 6세기 대에 들어오면 신라와 백제에서 이미 시행되어 나갔고, 그것이 구체적인 지방 지배에서는 피정복지에 대한 지배방식 통치방식으로서 지방제도의 성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서 신라의 율령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그것은 고구려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령문화의 기원을 신라는 신라 혹은 백제는 백제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구려로 이어지고, 고구려에서 다시 북중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일본으로, 신라를 통해서든 백제를 통해서든 고구려를 통해서든 일본으로 그 영향이 가는 이런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율령문화의 확산과정과 연관해서 좀 파악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인식의 토대에서 이해의 기본적인 토대에서 상대국을 자꾸 자국과 비교해서 자국의 우월성 내지는 자국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대국의 나라의 역사를 타자화하는 그런 식의 근대 초기에 보이고 있는 역사인식의 영향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함께 노력하고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森 : 역시나 일본 측에서는 백촌강전에 관해서는 의식이 집중되지만 周留城의 공방이라든가 육상 쪽은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좀 더 연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서기》는 신라를 敵國視한다든가 服屬視하는 하나의 사관에 서 쓰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음의 8세기 대외의식 같은 것을 좀 더 해명해 가는 가운데 신라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율령제에 관한 것은 다음의 사카우에 선생님의 논의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 7세기 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도 7세기의 목간이 몇 개 발견되었고 그 속에 신라적인 표기라든가 신라적인 제도를 반영한 것이 있어서 역시 7세기 말의 신라로부터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풍속, 습관을 중국화하는 단계에서 그런 신라의 방식을 모방한다든가 하는 그런 점은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점을

또 새롭게 발견해 내서 신라와의 관계를 더욱 다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여기에 대한 노 선생님의 답변은 생략하고, 사카우에 선생님의 발제를 좀 들으면 합니다. 이게 좀 길어서 조금 더 짧게 부탁드립니다.

坂上 : 아니요, 읽으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서요.

출토 문자 자료를 통해 신라·백제의 고대사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혹은 심화·발전,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노 선생님의 보고입니다.

신라의 이른바 율령제에 대해서는 신라도 唐, 일본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법전을 만들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만들었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한편, 개별 條文 내지는 條文群을 그 때마다 명령으로 내렸던 결과 어떤 점에서는 唐과 일본의 제도에 가까워졌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율령에 관해서는 개별 조문이 분명하지 않은 일본의 오미료(近江令)와 기요미하라료(淨御原令)와 마찬가지로 방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적인 제도에 대하여 출토 문자 자료가 향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백제 목간의 출토로 실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듭된다면 신라·백제 율령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질 것이고 일본의 율령제의 특징도 파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한 간 교섭사 연구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곳이 다르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4~6세기 왜 5왕과 임나일본부, 광개토왕비 등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그 후에 젊은 층에는, 여기서 젊은 층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통설이 크게 바뀔 예감이 없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나라(奈良)시대보다 오히려 헤이안(平安)시대 이후부터의 일본과 신라·고구려의 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최근에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발해와의 교섭사도 일본에서는 러시아령까지 시야에 넣고 여전히 활발히 진

행 중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번 공동연구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이 분야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직 장보고 등의 영웅을 중시하는 연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일교류사의 연구사는 직접 그것을 말해 주는 사료가 한국측에 있는 경우의 교섭사에 한정되어 있고, 교섭이 없는 혹은 회박했던 혹은 한국측에 사료가 없는 시기에 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든 체제비교론이 없다면, 신라의 울령제에 대한 논의도 서로 자신의 주장만 펴면서 끝이 나지 않는 논쟁으로 끝나 버리고 연구는 발전이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의 발전이라는 것은 가령 신라의 울령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사 속에서 그것은 어떤 위상을 갖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제로 다룰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고려의 무인정권, 일본의 헤이시(平氏) 정권 이후 양국이 걸어진 길까지 같이 살피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봉건제의 존재 여부, 시대구분론으로 연결되는 논의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므로, 부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는 신라사가 아니라 한일관계사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이 교섭사보다는 오히려 비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관계사 연구는 교섭사로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왜 이러한 교섭사가 되었는가 하는 원인론을 근현대까지 시야에 넣고 논의할 때에는 어디가 다른가, 어디에서 왜 달라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세기라면, 8세기 국가에 의한 사람의 파악이라는 것은 촌락문서 등을 이용하여 문헌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8세기의 宮都, 國衙, 郡家뿐만 아니라 촌락과 논, 밭 등 생산수단의 발굴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선사시대의 촌락의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입지에 기인한 원인이 있어서 일본의 촌락은 散村이거나 계획촌락이 많았던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邑的인 촌락이 통일

신라시대에도 같은 형태였다면, 산성이 많은 것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울령제 시행의 의의와 울령제 도입 시의 사회 상황은 일본과 신라에서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은 이번의 출토 문자 사료와 촌락을 거론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고학 쪽에 기대하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헌학과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고고학의 일한공동연구가 이른바 고고학자 간의 연구교류가 아닌, 또 고분시대까지 한정된 것이 아닌 또 보물찾기식의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문헌학과 대조해 나가면서 교류를 거듭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나중에 반성에 대한 시간이 또 있으니까,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식 : 사카우에 선생님은 한일관계사에 관해서 한국측 자료가 일본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카우에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 선생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태돈 : 사카우에 선생님의 말씀에 또 제안에 대부분 동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 공동연구에서 비교사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사회제도라든가 생활양상 또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상호비교 등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간의 교섭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양국의 양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여러 제도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양국의 역사 진전에 있어서의 동질적인 측면과 차이가 있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고학적인 측면 고고학 분야도 연구에 합류시켜서 출토 유물들을 통한 또는 그 유적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역사상을 가지고서 비교사학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도 동감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진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사로서의 어떤 역사체계의 구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함께 해보는 그런 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에는 ‘울령문제가 있다, 없다’는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울령체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坂上 :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좁혀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적으로는 예를 들어 좀 전에 제 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경전 속에 角筆이 나오는데 신라에서는 적어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계통은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할까요, 경전에 대나무 주걱 같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한자의 음을 달거나 합니다. 일본에 남아 있는 경전 그것이 신라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것은 확실하게 신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했다고 할까 그것을 배워서 일본의 訓讀 방법 등을 일본에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최근에는 활발하게 연구로서 진행되어, 결국 그 사료, 그런 의미에서 출토 문자 사료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헌사료 속에도 그런 신라적인 것이 혹은 신라의 것이 발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적으로 앞으로 또 늘어나거나 혹은 방법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 논의의 폭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식 : 차이점이 영 안 나오는데요.

坂上 : 그럼 잠시 좀 전의 노선생님의 8세기 이후에 대한 견해에 대해 저의 감상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처럼 일본의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을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같이 생각해서 또는 율령을 메이지시대의 헌법과 같이 생각하여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율령에까지 투영시켜 신라보다 앞섰다고 하는 평가를 해 왔다는 점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 그런 연구사도 있기는 합니다.

단, 그런 경우에 율령제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 규정 그 자체가 일본에서 꼭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처럼 일본 율령제를 하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라사는 매우 재미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신라에서도 체계적인 율령법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같은 조건 하에서 어느 쪽이 먼저인가에 대해 논쟁하는 것, 그야말로 무언가, 뭐라고 할까요? 그 연구사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8세기 이후의 신라에 대하여 일본에서 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않은 원인은 唐과 비교하여 견당사가 매우 화려했다고 하는 면도 있지만 역시 唐의 경우에는 사료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문헌사료뿐만 아니라 투르판(turfan)문서 라든가 敦煌 문서 등 그런 율령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문서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속일본기》 라든가 또는 율령 그리고 正倉院 문서 등의 문헌사료가 많이 존재하고,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또는 실태에 근접한 논의가 가능한 데 비하여, 역시 신라는 사료적으로 매우 적은 면이 있어서 연구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일본과 唐은 비교하기 쉽지만, 일본과 신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방법이든 사료가 늘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 사카우에 선생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라가 사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돈 : 사카우에 선생님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일관계사 연구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래에 한국에서 활발하게 관심들을 가지는 분야의 하나가 문자의 전래와 사용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즉 한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수용되고 사용되어 나갔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논의 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갈지(之)자 있지요? 이 之자가 이 땅의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나 신라, 백제에서 이 之자가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되었는데 일본의 목간이나 여타 기록에서도 之자가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라를 통해서 혹은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면에서 한자 수용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에 있어서의 한자수용에 있어서의 동일한 현상을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之자가 문장 종결사로 사용된 것이 중국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에서 한자 사용에 독특한 어떤 한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던 것이 실제로는 중국에서도 그런 용례가 사용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식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之자에 대한 중국에서의 다양한 용례 중에서 문장 종결사로 쓰인 그 케이

스를 특별히 고대 한국이나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사용·정착시켰다는 것은 유례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독특한 한자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요소의 기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고 정착되는 데에서의 특성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간의 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연구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위치시키고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식 :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비슷한 논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본 쪽 선생님 중에 누가 한 분이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濱田 : 예, 모리 선생님도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셨으면 하는데요, 사카우에 선생님께서 율령제의 비교사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한공동연구에 있어서 교섭사에서 비교사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령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좀 전에 노태돈 선생님께서 한자의 사용법과 관련해 신라와 일본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의 문화, 넓은 의미에서는 큰 문화, 근본적인 문화를 신라와 일본이 어떤 스타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 수용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를 반 이상은 계승하고 있는 그런 발해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신라·일본·발해를 비교해서 조합하는 것은 또 중국문화를 수용하는 별도의 형태를 그 속에서 발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태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그 속에 발해는 들어가겠지요.

조법중 : 한국사의 논의 속에서 동아시아사의 큰 틀의 이야기를 다루려면 당연히 훨씬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시라면 동의합니다.

김태식 : 그러면 하마다 선생님의 그 발전적인 제안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좌담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